

## 자장면 가격 1년새 14% 급등



▲ 외식업체의 제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음식점 앞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외식업체의 식재료 원가 수준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 26일 '경향신문'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날 발표한 '2022년 3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보고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3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89.84로 전 분기보다 4.28포인트 올랐다.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최근 3개월간 외식업체의 매출과 경기 체감 현황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수치가 100을 넘으면 경기호전을 전망하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외식 경기 회복세에도 3분기 외식산업 식재료 원가지수는 145.89로 전 분기보다 0.71포인트 올라 외식업체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상승하며 매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한식 음식점업이 148.41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외국식 음식점업(147.59), 기관 구내식당업(146.61), 기타 간이 음식점업(146.47), 주점업(144.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식재료의 원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100을 넘으면 원가가 올랐다는 의미다.

외식업체의 식재료 가격 상승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기준 자장면 가격은 평균 6,300원으로 1년 전보다 13.8% 뛰었다. 갈국수 가격은 8,423원으로 12.9%, 김밥은 3,046원으로 11.5% 상승했다.

## 3분기 0.3% 성장, 1년 만에 최저

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0.3% 성장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수출 증가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에 소비 마저 위축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빠르게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분기 대비 성장률(속보치)이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매체가 한국 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0.1%)를 웃돈 수치이다. 전년동기비로도 3.1% 성장해 시장 전망치(2.7%)를 상회했다. 남은 4분기에 소폭 마이너스 성



▲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빠르게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편집-shutterstock/타운뉴스

장을 기록하더라도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6%)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은 작년 3분기(0.2%) 이후 1년 만에 거둔 최악의 성적표다. 올 1분기(0.6%), 2분기(0.7%)와 비교해도 크게 낮아 경기 둔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3분기 수출은 운송장비와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1.0% 증가했지만, 수입이 원유,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5.8%나 급증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늘면서 순수출은 전체 성장률을 1.8%포인트 깎아내렸다. 그나마 GDP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승용차 등 내구재,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1.9% 증가해 성장을 견인했다.

## 비정규직 816만 명 '역대 최대'

올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9만명 증가한 815만6천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치인 160만원에 이르렀다.

지난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날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2,172만4천명 가운데 정규직이 1,356만8천명, 비정규직이 815만6천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급증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806만6천명)를 나타냈는데, 올해 9만명이 더 늘어나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질 나쁜 일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리인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는 1년 전보다 17만5천명이나 늘어난 368만7천명으로 역시 역대 최대치다.

다만 정규직 노동자가 60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은 1년 전보다 소폭 줄었다.

올해 비정규직의 월 평균(6~8월) 임금은 188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2천원 늘었

는데, 정규직(348만원)과의 임금 격차는 159만9천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간 비교를 위해 별도 기준으로 집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Temporary workers) 비중은 지난해 한국이 28.3%로 콜롬비아(28.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회원국 평균 비정규직 비중은 11.8%에 그쳤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9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